

# “APEC 정상회의 개최지, 제주가 적극”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외교부 지난달 말 개최도시 선정 계획 설명회 개최 6월 개최지 최종 결정... 도, 실사 등 유치전 본격화 “기후 대응 등 제주 핵심정책 APEC 가치와 맞닿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공모일정이 발표됨에 따라 제주도가 유치전에 본격 뛰어들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APEC 정상회의의 제주 유치를 위한 분야별 기본 계획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APEC 정상회의의 개최도시 선정계획 설명회를 개최해 유치 희망도시에 대한 공모 일정 및 선정기준 등을 공개했다.

제주도는 제주의 다양한 강점을 집중 부각하면서 국가 발전 및 APEC의 가치 확산을 중심으로 제주 개최의 효과를 강조할 전략으로 APEC 정상회의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의 경제 성장과 번영을 목

표로 하는 정책 대화의 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제주의 핵심 정책이 APEC이 추구하는 가치와 맞닿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구상이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그린수소 클러스터 구축, 민간우주산업 거점 조성,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등 성장하는 미래 신산업을 보여주고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및 외교 영토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 방점을 둘 계획이다.

또 제주가 탈플라스틱 등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통해 기후위기에 선제 대응하는 도시임을 내세우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경제협력 방안 논의의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월 APEC 정상회의의 유치를 공식화한 이후 3월 범도민추진위원회 발족 5월

제주 유치 기원 음악회 개최 6월 캐릭터 홍보대사 위촉 10월 전담팀 구성 등을 통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제주도는 4월 19일까지 APEC 정상회의의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고 5월 중 이뤄지는 현지 실사와 프레젠테이션(PT) 발표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최종 개최

도시시는 6월쯤 결정될 예정이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며 “절실한 마음으로 공모 준비에 최선을 다해 2025 APEC 정상회의를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내년 제주-中 하이난 교류 30년”

### 오영훈 지사 지난달 말 현지 금융 관계자와 간담 단순 경제협력서 면세산업과 과학까지 협력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중국 하이난성과 경제·과학·헬스케어 등의 교류 확대에 나섰다.

제주도는 보아오아시아포럼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오영훈 지사가 지난달 28일 하이난 아시아태평양금융타운을 방문해 현지 시설을 둘러보고, 쉬제(徐杰) 대표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 사진 하이난 아시아태평양금융타운은 중국 하이난성에 위치한 금융 중심지로 국제 금융, 자유무역, 첨단 기술 분야의 발전을 목표로 개발됐다. 해외 금융기관의 진출을 장려하고,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항

정책을 통해 관세, 세금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 지사는 하이난성의 투자유치와 금융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제주의 투자진흥지구와 지역혁신 벤처펀드 등 기업 지원 정책을 현지에 홍보했다.

오 지사는 “그린수소와 신재생에너지, 우주산업 등 제주의 신산업은 매력적인 투자 분야”라며 “내년 제주와 하이난성의 교류 30주년을



기념해 투자와 면세산업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쉬제 아시아태평양금융타운 대표는 “제주와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고 다양한 협력을 기대한다”며 “제주 방문도 검토하겠다”고 교류 의사를 밝혔다.

한편 오 지사는 이날 금융타운 방문에 앞서 광저우해양지질조사국 쓰야남해지질연구소가 위치한 쓰야 야저우완 과기성을 방문했다.

야저우완 과기성은 난관 과학기술도시, 심해과학기술도시, 대학타운, 글로벌 동식물 종질 자원 도입

중계기지 등으로 구성됐으며 제주도는 과학기술 분야 혁신을 위한 공약인 R&D 컨트롤타워 (가칭) 과학기술정보통신혁신원 설립과

청정바이오산업 글로벌 메카 도약 과정에서 과기성과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도영기자

## 2200억 규모 삼다수 도외판매 개발공사 물류운영사업자 공모

2200억 규모의 제주삼다수 도외판매 물류운영사업 입찰이 추진된다.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의 원활한 물류 환경 조성을 위해 도외판매 물류운영사업 입찰을 진행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신규 물류운영사업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제주삼다수 도외물류운영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예정 사업비는 약 2215억원이다.

신규 물류운영사업자는 사업수행 실적, 경영상태 등의 정량평가(10점)와 외부 전문 위원들이 평가하는 정성평가(70점) 및 입찰 가격 평가(20점)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다.

정성평가 항목에는 물류 운영 계획, 물류 품질 확보를 비롯해 도내 운송 사업자 참여 확대, 단계적 운송계약 금지, 적정 운임 평가 및 도내항 물동량 균형 배정 노력 등 제주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항목 등이 포함돼 있다.

제주개발공사 관계자는 “새로 진행되는 도외물류사업자 선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선거공보물 발송 작업 지난달 30일 제주시 이도2동주민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선거공보물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이상근기자

## 제주도선관위 투표소 230곳 확정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총선)와 도의원 보궐선거 등 투표소 230곳을 확정했다. 또한 세대별 투표안내문과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물, 거소투표신고자 1300여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했다.

31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소는 투표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모두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됐다.

도선관위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관련, 후보자를 등록한 38개 정당 중 제주지역에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제출한 8개 정당의 선거공보물을 발송했다.

아울러 도선관위는 투표장소로 이동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선거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사전)투표일에 교통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소멸·멸실차량 일제조사

제주시는 4월 한 달 동안 사실상 소멸·멸실 됐음에도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가 이뤄지는 많은 차량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장기 미운행한 차량을 포함해 폐차장에 입고돼 사실상 폐차된 차량,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등이다.

조사 결과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부과세 처리할 계획이다. 이상민기자

## 제주 도정 첫 여성 정무부지사 탄생

### 도, 김애숙 부지사 임용 “도의회와 원활 소통 기대”

제주도 최초 여성 정무부지사가 탄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김애숙(사진) 전 의회사무처장을 민선 8기 두 번째 정무부지사로 임용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김애숙 정무부지사는 지난 2월 27일 정무부지사 후보자로 지명됐으며 3월 28일 도의회 인사청문 결과 청문결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이날 공식 임용됐다.

김애숙 신임 정무부지사는 1984년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해 제주도 관광국장파 의회사무처장



을 역임한 40년 경력의 공직자 출신으로 풍부한 행정 경험과 의회와의 탁월한 소통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제주도는 신임 정무부지사가 강점을 살려 의회, 언론, 도민사회와 원활히 소통하고 협력해 도정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도정 최초의 여성

정무부지사로서 여성 권익 신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애숙 정무부지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자격기준 부합 논란이 있었지만 ‘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도영기자

## 三姓祠 春期大祭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귀하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高·梁·夫三姓祠財團에서는 탐라(탐라)를 창시하신 三乙那의 위업을 기리고 추원하는 2024년도 삼성사 춘기대제를 다음과 같이 봉향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4년 4월 10일(수) 10:00

**장소** 三姓祠 三聖殿 (제주시 소재 삼성혈)

**현관**

초헌관 부구옥 (夫龜旭, 부산광역시)  
 아헌관 고용보 (高龍輔, 제주시)  
 종헌관 양방선 (梁芳先, 제주시)  
 전사관 부순화 (夫珣華, 재단 재무이사)

  
 강문철(康文七)

  
 강경효(姜定孝)

※ 2024. 4. 10. 춘기대제 시 삼성혈 무료 관람입니다.

2024. 4. .

재단법인 고·양·부삼성사재단 이사장 양 석 후

## 남평문씨 남제공 입도 830주년 추모대제 봉행

만물이 생동하는 甲辰年 새 봄을 맞이하여 일가님들의 가정에 건승과 행운이 깃들시기를 기원합니다. 입도시조 남제공(南濟公) 諱 曄(諱) 할아버님을 비롯한 장경공 태학사공 동지총관공 역대 탐라왕자 제주우도지관공 등 추모탑 봉향 75위 선조님들에 대한 2024년도 추모대제를 아래와 같이 봉향하오니 일가님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례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24년 4월 7일(4월 첫째 일요일) 12:00

■ 장 소 : 남제공 추모탑 성역지 (제주시 애월읍 하거리 383번지)

■ 주 최 : 남제공파 전국종문회    ■ 주 관 : 칠머리파 종친회

■ 제 관

- 초헌관: 칠머리파종친회 회장 문익순
- 아헌관: 충선공파종친회 회장 문쌍수
- 종헌관: 매촌파종친회 회장 문상훈
- 축 관: 화성이파종친회 이사 문호신
- 산헌관: 칠머리파종친회 부회장 문덕일
- 좌집사: 칠머리파종친회 이사 문용식
- 우집사: 칠머리파종친회 이사 문상섭
- 집례: 의전부회장 문태준

■ 연락처) 사무국장 문정홍 010-5692-5516

## 남평문씨 남제공파 전국종문회 회장 문태영